

귀촌일기-김장 철

아침을 열며



박찬규
에코특수가치연구소 이사

벼 수확이 끝난 농촌의 별판은 평화롭고 편안한 안식처 같다. 봄부터 바쁘게 살아온 농부들의 마음 또한 한결 여유롭다. 다만 농사는 여름도 견디고 태풍이 없어 풍작을 이룰 수 있었는데도 수확을 하기 전에 벼벌레가 창궐하더니 많은 논들을 쓸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대부분의 농가들은 서둘러 농약을 하여 병충해를 예방했지만 나이가 많은 농부들은 시기를 놓쳐 벼벌레 피해가 제법 컸다. 그래도 벼농사는 풍작이라 말할 정도로 수확량이 있어서는 전년 대비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

농촌은 가을걷이가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지만, 김장 철을 맞이하게 된 남도에서는 다시금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지기 시작한다.

필자가 살고 있는 해남은 11월 중순부터 김장을 위한 절임배추 판매에 바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이달 중순부터 김장을 하기 시작해 대부분의 가정에서 김치를 담기 때문이다.

남도에서는 8월 중순부터 배추를 기르기 시작해서 3개월이 지난 이달 중순

부터 절임용 배추를 생산한다. 이때가 배추 맛이 잘 들고 김장을 위한 절임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청정지역으로서 생산하는 농산물 품목마다 대부분 유기농이며 품질 또한 전국에서 으뜸에 속한다.

특히 배추의 경우에는 가을 해풍을 맞고 자라서 아삭한 맛이 일품이며 절임 이후에도 무르지 않고 단단해 수도권에서 인기가 높다. 그래서인지 이달 중순부터는 절임배추의 주문이 전국에서 밀려들어 배추 농사를 하고 있는 농민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

해남의 절임배추는 108일을 채운 후에 수확하기 때문에 절임 후에도 단맛과 아삭함을 갖고 있다. 해남의 절임배추는 타 지역의 농가와 다른 점이 바로 1차 절임을 대부분 바닷물로 한다는 것이다.

양식장에서 정수된 바닷물을 확보해 1차 절임을 하게 되면 간이 골고루 배추에 배어 균일한 맛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 완벽한 절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2차 절임은 소금으로 한다. 소금도 당해 연도에 생산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간수를 뺀 소금을 쓰기 때문에, 쓴 맛을 잡아주어 절임 후에도 배추가 무르지 않고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는 배추 모종을 심어놓고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행히 가을에 일조량이 많아서 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도 귀촌 후로는 매년 김장을 한다. 언제부터인지 배추밭 고랑에는 재래종 갖이 함께 자라 김장철의 입맛을 돋게 해주는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장철에는 주로 생산되는 품목인 배추와 갖뿐만 아니라 텃밭 한쪽 귀퉁이에 다양한 채소들을 심어서 김장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무를 배추 다음으로 많이 심는데 무는 김장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재료이다. 무의 파종시기도 배추와 비슷해 3개월이 넘으면 수확을 하게 된다.

올해도 무의 작황이 좋아 김장철에 속 재료와 깎두기의 재료로 손색이 없다. 가을에 걸맞는 적정 강수량 덕에 쪽파의 작황도 비교적 좋은 편이다. 입맛을 돋우는 생강과 당근의 수확도 함께 하여 김장철에 사용할 재료를 미리 준비한다. 농촌의 생활은 벼 수확이 끝나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바로 김장철로 들어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준비를 한다.

귀농-귀촌 후에 어렵고 힘들지만 한 농촌의 하루하루가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는 순간에는 다시금 희망을 갖게 된다. 그리고 겨울동안 가족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김장을 이웃과 함께 하면서 귀농-귀촌의 희망을 엿본다.

社說

광주공원 포차거리 '불법' 용인 안된다

광주시 재구조화 사업 논란

광주시가 수 억원을 들여 '광주공원 포장마차 거리'를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칫 '불법' 포장마차 거리만 양성화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남구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 중심) 사업'의 일환으로 남구 구동 2-2번지 일대 '교통광장 재구조화 사업(청춘빛포차 거리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3억5000만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재구조화 사업은 연말까지 광주공원 앞 노상 공영주차장 49면을 폐쇄한다. 광주공원과 향교, 회경루 등 역사·문화 자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집결지로 사용됐던 역사성을 고려해 더 이상 주차장으로 방치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는 의도도 있다.

광주공원 포장마차거리는 1970년대 시작돼 50여 년 넘도록 광주시민과

함께한 장소이지만, 단 한번도 정식 영업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불법 포장마차 운영이 가능했던 이유는 광주 시 관할인 광주공원과 남구의 구유지인 공영주차장 사이에 절묘하게 위치해 관리·감독의 주체가 모호했고, 이에 따라 원활한 단속과 계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2020년 광주시가 영업 합법화를 시도했으나 타 노점상과의 형평성과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기존 포차거리 상인 대부분이 반대했고, 일부 상인은 신용불량으로 사업자 등록조차 할 수 없다며 당장의 합법화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기칭 '청춘 빛포차 거리 조성사업'이 자칫 '불법 영업'을 용인해준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근에서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과 일부 노점상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불법 영업'까지 묵인해 가면서 광주공원 포차거리를 활성화하는 것은 공정성도 크게 훼손할 수 밖에 없다. 행정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합법 영업을 이뤄지는 청춘 빛포차 거리 조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목포·순천대 통합 '글로벌 대학' 꿈꿔야

28일 공동추진위 첫 회의 열려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통합과 통합의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8일에는 '대학통합 공동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대학통합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위한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통합이 이뤄지기까지는 아직도 수많은 난제들이 남아있지만 양 대학이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과 지역의 위기를 통합을 통해 극복하기로 합의한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면서 성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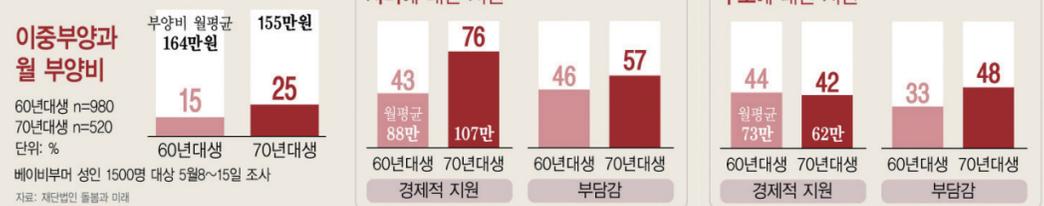
이날 회의에서는 2026학년도 통합의대 설립을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예비평가인증을 신청하는 등 차질 없는 대학 통합과 통합의대 설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목포대 교무처장과 순천대 대외협력부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학통합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통합계획(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실무위는 특성화·입학과 교육·연구·학생·산학, 행정·인프라 등 3개 분과로 운영되고 교명 선정 방식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대학 통합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함께 조율해 가기로 했다.

학령인구감소로 지방대 위기가 본격화된 지금 양 대학의 통합은 의미가 크다. 당장 교육부의 '글로벌30' 대학에 선정된 두 대학의 통합은 수도권 대학에 뒤지지 않는 글로벌 거점 국립 대학을 만드는 계기라는 점에서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두 대학의 정원도 1만 3000여 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전남도립대와 통합까지 완료되면 기업의 인수합병(M&A)처럼 3개의 대학이 1개의 메가급 대학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고정비용을 줄이는 대신 그 비용을 교육에 투자할 경우 대학의 경쟁력도 높아진다. 양 대학이 그동안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양 대학은 물리적 결합을 넘어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대학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시민 모두의 관심과 함께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된 중앙 정부의 지원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지역 대학의 성장은 지역과 지역민을 키우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부모·자녀 부담 비용 및 부담감



서석대



'사람은 가끔 마음을 주지만 소는 언제나 전부를 바쳐...' 지난 2009년 개봉된 영화 '워낭소리'는 팔손 농부와 마흔 살 늙은 소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평생 땅을 지키며 살아온 농부 최 노인. 귀가 잘 안 들리고 한쪽 다리가 불편한 그에게는 30년을 부려온 소 한 마리가 있다. 소의 수명은 보통 15년. 그런데 이 소의 나이는 무려 마흔 살이다. 살아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 나이지만 노인에게 이 소는 가장 친한 친구이면서 최고의 농기구고 유일한 자기가용이었다. '아버지를 통해 소를, 소를 통해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감독의 말처럼 무뎠던 노인과의 무뎠던 소는 환상의 친구였고 둘의 삶 자체였다.

불우했던 화가 이중섭에게도 소는 혼이면서 생명이었다. 유년시절부터 소를 즐겨 그렸던 그는 주변 사람들로 부터 '소에 미쳤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특히 그가 그린 그림 가운데 역동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것은 대부분 토종 한우인 황소였다. '우직하면서도 무뎠던 황소, 힘이 세고 용맹해서 호랑이와 싸워 이겼다는 황소야말로 나에게 의미 있는 대상이었다'는 게 이중섭의 설명이다. 시인 정지용의 시 '황우'에 등장하는 얼룩배기 황소나 박목월의 동요 '송아지'에 나오는 얼룩송아지도 바로 황소였다.

농경사회였던 우리에게 소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다.

친숙한 이웃이면서 벗이기도 했다. 사는 동안 눈·발갈이는 물론이고 달구지를 끌며 퇴비를 제공하고 죽어서는 고기와 뼈는 물론, 가죽까지 사람에게 바쳤다. 성질이 온순해 우직하고, 인내심도 강하다. 소는 또 단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았던 이 땅의 농부이면서 모든 이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시인 권덕진은 이런 소를 두고 "제 한 몸마저 희생하며 /묵묵히 땅을 일구고/터전을 지키기 위해/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황소는/이 땅의 아버지다."고 했다.

전남 산 한우가 올해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해 대통령상부터 국무총리상과 장관상 등을 모두 휩쓸었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주최한 2024년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는 신안의 한 농민이 출품한 한우가 3816만원에 낙찰됐다. 그렇다고 한우의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당장 한우농가들은 생산비 증가와 판매가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소비 부진에 따른 경영난도 겪고 있다. 럽피스킨 등 가죽산업병 확산에 대한 걱정도 많다. 성질이 온순해 우직하고, 인내심이 강해 믿음직한 한우. 상은 반값지만 그것에 만족하기보다 '이 땅의 아버지'처럼 제 한 몸 희생하며 묵묵히 살아왔던 한우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